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

이상우**

본 연구는 ‘친선의 해’를 북중 양국이 추구하는 외교목표가 아니라, 자국의 국가목표이자 국가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최근 북중관계 ‘이상설’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친선의 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2009년과 2024년 ‘친선의 해’를 비교해 보면, ‘친선의 해’의 활용 의도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북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북한이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구도를 형성 및 활용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중국의 목표에 배치되며, 중국은 ‘친선의 해’를 통해 상술한 북한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북한의 ‘친선의 해’ 활용 의도의 변화에 대응해, 2024년 중국의 ‘친선의 해’ 활용 강도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북중 ‘친선의 해’가 폐막식조차 없이 막을 내린 사실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남한 신정부는 중국 및 베트남과의 유연한 외교,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제어: 북중관계, 관계 이상설, ‘친선의 해’, 국가이익

*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LU-2250001).

** 중국해양대학교(中國海洋大學) 한국어학과 부교수.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첫째, 북중 양국의 최고지도자는 ‘수교 60주년(2009년) 및 75주년(2024년)을 앞두고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을 교환하면서 수교 기념 및 이른바 ‘친선의 해’(중국어 ‘友好年’)의 시작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개막식 및 폐막식이 개최된 2009년과 달리, 2024년 북중 ‘친선의 해’는 개막식이 개최되었으나 폐막식이 개최되지 않았으며,¹⁾ 이는 최근 북중 관계 ‘이상설’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학계나 언론이 ‘친선의 해’ 설정 관련 북중 양국의 의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제쳐 두고, 단지 개막식 및 폐막식의 개최 여부, 2024년 4월 이후 북중 간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단 등으로 ‘성과의 유무 → 북중관계 이상설’이라는 단순 도식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²⁾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분석하면서

1) 2009년의 경우, 북한 김영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3월)하면서 북중 양국의 총리가 ‘친선의 해’ 개막식에 동반 참석했고,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북한을 방문(10월)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친선의 해’ 폐막식에 동반 참석했다. 반면, 2024년의 경우, 중국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4월)하면서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과 개막식에 동반 참석했으나, 폐막식은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방북 이후 북중 간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단되었다.

2)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집계한 데 따르면, 북중 간 최고위급(최고지도자,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장차관급 등 고위급 인사)의 상대국 방문의 경우 상대국 최고지도자와의 면담에 한정·대면·비대면 교류를 볼 때, 정상급 회담·최고지도자 면담·축전 및 답전(연하장

이상숙 박사가 잘 지적했듯이, 북한외교의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북한이 자국의 외교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주, 평화, 친선(이 글에서는 ‘친선의 해’)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³⁾ 즉, 북한외교에 있어서 친선(‘친선의 해’)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자국의 외교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호(우호년(友好年))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중 양국이 자국의 외교목표 즉 ‘국가이익’을 위해 ‘친선의 해(友好年)’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선의 해(友好年)’ 개막식 및 폐막식 개최 여부 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폐막식이 개최되지 않은 것은 결국 각자의 외교목표에 따른 양국의 외교행위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중 양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양국의 대외정책 및 그 기반이 되는 국가이익에 분석의 초점을 맞춰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친선의 해(友好年)’가 북중 양국이 외교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북중 ‘친선의 해(友好年)’를 전문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 북-베트남의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를 살펴본 황수환의 연구는 북한과 대상국가 간 이루어진 ‘친선의 해’를 전문적으로 다룬 유일한 선행연구인데,⁴⁾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단, ‘친선의

포함)·(구두)친서 등의 경우, 2008년은 총 10회(각각 2·2·5·1), 2009년은 총 14회(각각 2·3·9·1), 2010년은 총 11회(각각 0·2·7·2), 2024년은 총 10회(1·0·9·0)이다. 교류 횟수상으로는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3) 이상숙,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中)정책(2012-2021)』(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1쪽.

4) 황수환, “북한과 베트남의 ‘친선의 해’ 설정 의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5-06(2025), 1~5쪽.

해’ 설정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인 베트남의 의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북중 ‘친선의 해(友好年)’의 분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과 더불어 중국의 의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북중 양국이 ‘친선의 해(友好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좀 더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중, 중-베트남, 북-베트남 ‘친선의 해(友好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베트남과 북한이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변국이자 중국과 동일한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⁵⁾ 즉, 북중 양국이 ‘친선의 해’를 설정한 의도에 대한 규명은 북한 외교와 동시에 중국의 주변국 외교를 이해하는 데서도 매우 유의미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친선의 해(友好年)’, 특히 2024년 북중 ‘친선의 해(友好年)’ 설정의 의미에 대한 고찰은 북중관계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최근의 북러 관계, 한미(한미일) 관계 및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2025년 6월 출범한 남한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외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요컨대,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에 대한 고찰은 최근의 북한 외교, 북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질서 등의 분석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사료된다.

이 논문은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국가이익과 외교행위의 의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인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중, 중-베트남, 북-베트남의 최고지도자 간 교환한 ‘친선의 해(友好年)’ 기념 축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과 중국의 의도를

5)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주의국가임은 중국 언론이 당대회나 기타 중요 행사 시 외국에서 보내온 축전을 보도하는 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흔히 “朝越老古”로 불리는데, 북한 → 베트남 → 라오스 → 쿠바순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의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확인 가능한 공식 문헌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북중 양국의 국가이익과 외교행위의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로, 대외정책 및 그 기반이 되는 국가이익 관련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로 북중관계의 맥락에서, 북중 양국이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서, 2009년과 2024년 두 차례 북중 ‘친선의 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북중, 중-베트남, 북-베트남 ‘친선의 해(友好年)’ 기념 축전 내용의 비교를 통해 북중 양국이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좀 더 전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 북한과 중국의 대외정책 및 국가이익

본 연구가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북중 ‘친선의 해(友好年)’ 설정의 의미를 규명하는 연구인 만큼, 이론적 논의는 대외정책 및 그 기반이 되는 국가이익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북한에서 대외정책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으로 설명되는데,⁶⁾ 여기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은 북한 대외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즉 국가이익을 가리킨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서 국가이익의 과학성, 적절성이나 유용성에서

6)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179쪽.

비판이 존재하지만, 각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국가이익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용한 개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⁷⁾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핵심은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로 큰 틀에서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이라고 할 것이다.⁸⁾

대외정책이 추구하는 핵심목표이자 핵심이익인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자주·평화·친선은 1980년 이후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친선’ 등 북한 대외정책의 세 가지 기본이념은 한반도 문제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데, 친선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은 국제혁명역량(밑줄은 저자 강조, 이하 동일)과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북한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며,⁹⁾ 이는 결국 안전보장이라는 핵심목표이자 핵심이익의 실현과 직결된다. 정치외교 용어로서 중국의 ‘友好’는 북한의 ‘친선’과 유사한 대외정책의 이념인데,¹⁰⁾ 따라서 ‘친선’과 ‘우호(友好)’는 결국 북한이나 중국이 자국 대외정책의 핵심목표이자 핵심이익인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 ‘친선’(‘친선의 해’) 또는 ‘우호’(‘우호년’)의 방법을 활용함을 의미한다.

7) 김근식,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2002), 152쪽.

8)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1호(2013), 197쪽.

9) 한승대, “2012년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 변경과 혼합에 관한 단상,”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2021), 112쪽.

10) 실제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의 중국어판은 ‘친선’을 ‘友好’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정치외교 용어 중 ‘友好’가 ‘친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목표이자 핵심이익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대외정책은 탈냉전이라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근본적인 수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진영외교를 벗어나 서방세계를 포함한 전방위 외교로 전환하게 된다.¹¹⁾ 또한 2010년 이후 북미관계 악화와 남북관계 중단 상황에 따라, 북한의 대외전략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안보이익의 최대화, 남한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른바 ‘선택적 병행’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¹²⁾ 2022년 러우전쟁 발발 이후, 특히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 및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체결로, 북한은 안전보장, 즉 안보이익의 최대화를 위한 ‘선택적 병행’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제정세의 핵심의제(時代主題)를 ‘혁명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가장 주요한 국가목표이자 국가이익으로 추구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필수적인데, 따라서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외교를 전략적으로 중요시했다.

11) 김근식,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151~166쪽.

12)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193~224쪽. 김근식 교수의 논문 200쪽에서는 북미관계 악화 시기를 2009년 이후로 보지만, 2009년이란 시기구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2009년 북중 양국이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을 통해 ‘친선의 해’의 시작을 선포했다는 점이나, 제3장의 <표 2> 및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2009년 8월 미국 클린턴(B. Clinton) 전 대통령의 방북, 이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S. Bosworth)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처럼 북미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대외정책 영역을 세분화하였는데, 2002년과 2007년 중국공산당 제16차 및 제17차 전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의 영역을 ‘발달국가(선진국)’, ‘주변국가’, ‘제3세계’, ‘다자외교’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¹³⁾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정치 보고를 통해 볼 때, 중국 외교전략의 기본 구도(布局)는 “강대국이 관건, 주변국을 우선, 개발도상국은 기초, 다자를 중요한 무대(大國是關鍵, 周邊是首要, 發展中國家是基礎, 多邊是重要舞臺)”로 짜여 있는데,¹⁴⁾ 중국어에서 ‘관건(關鍵)’과 ‘우선(首要)’의 의미를 미루어 볼 때,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외교를 강대국에 대한 외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외교를 전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변국이자 강대국인 러시아, 주변국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베트남 등에 대한 외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각종 형식의 ‘우호년(友好年)’ 개최이다.¹⁵⁾

13) 김홍규, “시진핑 시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아시아 브리프』, 통권 26호 (2021), 2쪽.

14) 이러한 기본 구도 관련 내용은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당대회 정치 보고의 외교정책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며, 이전의 개발도상국을 중점으로 하는 기본구도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 정치보고의 외교정책에서 제시된 기본 구도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전의 것과 하나의 차이를 보인다. 즉, “선진국(發達國家)”에서 “강대국(大國)”으로 바뀌었다.

15) 중러 양국은 2006년부터 이른바 ‘테마년(主題年)’을 선포하면서 현재까지 각종 ‘테마년’을 개최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러 간의 ‘테마년’이 북중 ‘친선의 해’의 원조라고 할 수 없지만, 북중 ‘친선의 해’, 중-베트남 ‘우호년’의 개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외교를 전략적으로 중요시함은 한반도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¹⁶⁾ 이 외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확대’ 역시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평화·안정’으로,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09년 및 2024년 북중 ‘친선의 해’의 비교

앞서 지적했듯이, 북중 양국은 자국의 외교목표이자 국가이익을 위해 ‘친선의 해’ 또는 ‘우호년’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및 2024년 북중 ‘친선의 해(友好年)’ 설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친선의 해(友好年)’를 활용한 북한과 중국의 의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 양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16)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소위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並行)’ 역시 이러한 기본원칙에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그리고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 2009년 북중 ‘친선의 해’

2009년 1월 1일 북한과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을 계기로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을 교환하면서 ‘친선의 해(友好年)’의 시작을 선포했다. 축전 중 ‘친선’과 ‘친선의 해’ 관련 언급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를 보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축전에서는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 및 ‘친선의 해’를 계기로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중국과 함께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희망 사항 외에 특별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중국 최고지도자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의 축전은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중 양국의 축전 중 친선 및 ‘친선의 해’ 관련 언급을 비교해 볼 때, ‘친선’이나 ‘친선의 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북한에 비해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깊고도 두터운 전통적’으로 양국의 친선관계를 수식하고 있는 점, ‘친선’의 역사, 현재적 의미, 희망사항 등을 차례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교 60주년 기념 및 ‘친선의 해’를 계기로 양국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는 다르지 않음에도,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하는 배경, 의도와 목적에서 북중 간 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중국 최고지도자의 축전에서 양국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 기조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 북한의 외교행태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이익과 목표 실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친선’의 방법 활용을 통해 이러한 국면을 돌이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2009년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의 '친선'과 '친선의 해' 관련 언급

북한 최고지도자의 축전 ¹⁾	중국 최고지도자의 축전 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0돛이 되는 2009년은 두 나라 인민이 《조중친선의 해》로 맞이하기로 한 뜻깊은 해입니다. 새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의의있게 장식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은 호상 리해와 친선을 더욱 두터이하고 조중친선관계발전 력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림방이며 조중친선은 두 나라 <u>로세대혁명가들이 물려준 귀중한 공동의 재부입니다.</u> 나는 새해에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u>깊이 뿌리내린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가</u> <u>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u> <u>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u>	…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함께 《조중친선의 해》가 정식 시작된다는것을 선포…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림방이며 두 나라 인민들은 <u>깊고도 두터운 전통적인 친선을</u> 가지고있습니다. 올해는 중조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0돛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간 조중친선협조관계는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부단히 <u>공고발전되어왔습니다.</u> … … 조중친선협조관계발전이 …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적극 기여하였다것을 증명 《조중친선의 해》는 두 나라 관계가 <u>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는 상징으로</u> 됩니다. 뜻깊은 이해에 … 친선을 더욱 증진시키고 … 조중친선협조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래일을 공동으로 개척해나가려고 합니다.

주: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09년 1월 1일, 2면.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2009년 1월 1일, 2면.

더불어 ‘친선’의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친선의 해’라는 특별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¹⁷⁾ 이러한 판단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친선의 해’ 선포 전 해인 2008년과 2009년의 북중관계 및 2009년 북중 ‘친선의 해’에 발생한 중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이 추구하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의 실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미관계 개선이다. 2008년 말 당시 북미관계를 볼 때,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회담(1월 16~18일) 및 그 소산인 ‘2.13 합의’, 2008년 10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발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해 온 오바마(Barack H. Obama)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 등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평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은 가능하나, 그 대신 한반도 문제에서의 ‘소외(Passing)’ 가능성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었다.¹⁸⁾ 또한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북미관계의 개선이 반드시 중국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따른 우려가 컸다. 따라서 중국은 ‘친선의 해’를 활용해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친선의 해’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할 필요가 있었다.

17) ‘친선’의 방법에는 정상회담, 축전 교환, 고위급 인사 교류, 경제·군사·의회·언론 등 분야별 교류 협력,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핵심 이슈에 대한 상호지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친선’의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국의 수교 정주년 기념을 계기로 특별하게 선포하는 것이 ‘친선의 해’라고 볼 수 있다.

18) 박병광, “‘2·13합의’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2008), 46~47쪽.

〈표 2〉 북중관계 및 2009년 북중 ‘친선의 해’ 관련 중요사건들(2008~2009년)

	2008년	2009년
1월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방북; 중국 폭설피해 위로 전문(김정일)	‘새해맞이 축전’;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방북
2월	연하장(북)	연하장(북)
3월	김정일, 주북한 중국대사관 방문; 후진타오 연임 축전(북)	김영일 총리 방중
4월	중국 열차사고 및 인명피해 위로 전문(김정일)	<u>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2호’의 시험발사</u>
		‘김정일 주대 축전(중)’
5월	답전(후진타오); 김영남, 주북한 중국대사 면담(구두친서) ¹⁾ ; 중국 스촨(四川)성 지진 피해 위문 전문(김정일)	김정일 답전(북)
		<u>북한, 제2차 핵실험</u>
6월	시진핑 부주석 방북 ²⁾	<u>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 채택(만장일치)</u>
8월	김영남 방중	클린턴 방북, 미 여기자 석방
9월	북한 정권 수립일 축전(중); 중국 건국일 축전(북);	북한 정권 수립일 축전(중); 후진타오 특사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방북; 중국 건국일 축전(북)
10월	<u>미,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u>	원자바오 총리 방북; 수교 축전;
11월	<u>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 당선</u>	<u>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발표;</u>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국무위원) 방북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주: 1) 주북한 중국대사가 중국 최고지도자의 구두친서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2005. 10. 28. ~30.) 이후 이루어진 중국 최고위급의 방문으로 핵실험 이후 다소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를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2>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중국이 추구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의 실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른 요인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이는 2010년 중-베트남 수교 60주년 및 ‘우호의 해’의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2010년 중국과 베트남 간 수교 60주년 기념 및 ‘우호의 해’ 개최를 결정한 2009년 4월 양국 총리회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국판 다보스 ‘보아오 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총리회담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베트남 ‘우호의 해’ 개최의 배경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엄중한 충격에 직면해, 중국-베트남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¹⁹⁾ 상술했듯이,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점차 주변국에 대한 외교를 전략적으로 중요시했는데,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對)주변국 외교를 더욱 중요시하게 했다.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주변국이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의 중점지역(重點區域)이고,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중국이 도달할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全面建設小康社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주변국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해 북한이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맞닿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그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19) 원자바오 총리가 강조한 메시지의 중국어 원문은 “面對當前國際金融危機的嚴重沖擊，加強中越友好合作具有特殊重要意義”이다. 이와 관련해 “溫家寶會見越南總理,” https://www.fmprc.gov.cn/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7292/xgxw_677298/200904/t20090417_9308523.shtml(검색일: 2024년 5월 20일).

역내 안보 불안정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세력균형을 미국 또는 중국 쪽으로 선회시킬 수 있는 양보를 제공해 준다는지 하는 방향으로 중미 대결구도를 ‘활용’할 수 있는 ‘Z card’의 입지를 확보했다.²⁰⁾ 따라서 북한은 북미관계의 진전 내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중국카드’를 사용하고자 ‘친선의 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에서 ‘중국카드’를 사용하고자 ‘친선의 해’를 활용한 것이고, 반면, 북미관계의 개선,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등이 중국이 추구하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목표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용이 자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 역내 불안정을 획책하는 위기조성 방법마저 사용하면서 미중 간 의견 차이를 벌려 자국 외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에 대응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 채택에 동참했고, 북한은 다시 여기자 문제를 통해 미국에 접근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미 여기자가 석방되

20) 김용호, 『세계화시대 국제관계: 동아시아적 이해』(서울: 오름, 2010), 266쪽. ‘Z card’는 외교정책 분석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여기서 Z는 세 번째 국가이고, 이 카드는 최초의 국가(X)가 두 번째 국가(Y)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1972년 미국이 소련에 대해 사용한 ‘중국카드’나 1979년 중국이 소련에 대해 사용한 ‘미국카드’를 들 수 있다. 이런 카드의 사용은 Y 국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X 국가가 Z 국가에 대해 협력/적대의 책략을 구사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Joshua S. Goldstein and John R. Freeman, *Three-Way Street: Strategic Reciprocity in World Politic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33~34 참고.

있고, 세력균형이 미국 쪽으로 선회면서, 중국은 북중 ‘친선’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9년 10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북중 ‘친선의 해’ 폐막식 참석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배후에, 북미관계 개선이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목표 실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표 2>의 2009년 11~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따른 중국 량광레 국방부장(국무위원)의 방북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2) 2024년 북중 ‘친선의 해’

2024년 1월 1일 북한과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을 계기로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을 교환하면서 ‘친선의 해(友好年)’의 시작을 선포했다. 축전 중 ‘친선’과 ‘친선의 해’ 관련 언급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북중 최고지도자의 ‘친선’ 및 ‘친선의 해’ 관련 언급을 비교해 볼 때, 그리고 <표 1> 2009년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2009년과 마찬가지로 ‘친선’이나 ‘친선의 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북한에 비해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임이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친선의 해’의 활용 의도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북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축전의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주의’ 및 ‘투쟁’ 관련 언급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다. 북한 축전이 북중 ‘친선’관계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땀어지고 공고화”되었다고 강조한 반면, 중국 축전은 중북 ‘친선’관계가 “사회주의건설과정에 끊임없이 심화”되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북한 축전이

〈표 3〉 2024년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의 '친선'과 '친선의 해' 관련 언급

북한 최고지도자의 축전 ¹⁾	중국 최고지도자의 축전 ²⁾
2024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5돌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조중 두 당과 정부가 올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정한것은 두 나라에서의 <u>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전진단계에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속에서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승화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기대와 념원에 부합됩니다.</u> 나는 충서기동지와 함께 《조중친선의 해》의 시작을 선포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u>맺어지고 공고화된 조중친선의 불패성이 남김없이 발휘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u> 《조중친선의 해》를 통하여 두 당,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래왕을 긴밀히 하고 친선의 정과 단결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 하며 <u>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협동을 보다 강화해나감으로써 조중관계사에 새로운 한페지를 아로새길것입니다.</u>	2024년은 중조외교관계설정 75돌이 되는 해 2024년을 《중조친선의 해》로 정한다는것을 선포하고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기념활동들을 진행하여 <u>중조관계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넣을것입니다.</u>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림방 중조친선은 <u>피어린 혁명투쟁속에서 굳건히 다져지고 사회주의건설과정에 끊임없이 심화되었으며 국제정세변화의 시련을 이겨냈습니다.</u> <u>최근년간</u> 쌍방의 공동의 노력과 추동밑에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는 <u>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섰습니다.</u> 쌍방은 전략적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였으며 <u>다목적인 국제문제들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의 공동의 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u>하였습니다. 새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u>전략적높이와 장기적각도</u>에서 중조관계를 대하고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u>홀륭히 수호 ... 공고히 ... 발전시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u>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5돌과 《중조친선의 해》를 계기로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전략적신뢰를 두터이 하며 교류와 협조를 증진시켜 ... 중조친선의 <u>새로운 장을 공동으로 아로새기고</u>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공헌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주: 1)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핑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1일, 4면.
- 2)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핑동지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1일, 4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강조한다면, 중국의 축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함은 강조하나, “공동의 투쟁”이란 언급은 없다. 즉,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국제정세의 핵심의제를 ‘평화와 발전’으로 보고 있고, 위의 내용도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면,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혁명과 전쟁’이라는 시대인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공동)투쟁’ 언급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위해서 ‘투쟁’이 필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의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중국의 추구하는 방법과 상반된다. 특히 중국은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을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보내는 축전이나 답전에는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 대신 모두 북한과의 “친선협조관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되기를 강조하고 있다.²¹⁾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중국 최고지도자의 2024년 축전이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2009년 축전보다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24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북한은 ‘(공

21) 이상우, “김정은의 ‘축전외교’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5권 3호(2022), 119쪽.

동)투쟁’을 위하여, 그리고 중국은 그러한 공동투쟁을 경계하는 대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친선의 해’ 선포 전 해인 2023년과 2024년의 북중관계 및 2024년 북중 ‘친선의 해’에 발생한 중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이 추구하는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의 실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북한의 미사일 및 위성 발사, 그리고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의 북러 군사밀착이다. 우선, <표 4>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2023년 한 해 동안 다섯 차례(2월 18일, 3월 16일, 4월 13일, 7월 12일, 12월 18일)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으며, 또한 세 차례(5월 31일과 8월 24일, 11월 22일)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²²⁾ 다음으로, <표 4>에서 드러나듯이 북러의 밀착이다. <표 4>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북러 밀착은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 북한의 적극적인 대러 외교 강화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또한 북한의 대미인식과 국제정세 인식, 즉 2021년 후반 북한이 국제정세를 이른바 ‘신냉전’으로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²³⁾ 2022년 5월 북한은 2000

22) 이 외에도 단거리 및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빈번히 발사하였다(1월 1일, 3월 20일, 2월 23일, 3월 9일, 3월 12일, 3월 14일, 3월 19일, 3월 22일, 3월 27일, 6월 15일, 7월 19일, 7월 22일, 7월 24일, 8월 30일, 9월 2일, 9월 13일, 11월 22일, 12월 17일). 이러한 미사일 및 위성 발사와 관련해 손대권, “2023년 북중관계 정세보고,” 『2023 중국정세보고』(서울: 국립외교원, 2024), 323쪽.

23)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1~3면.

〈표 4〉 북중관계 및 2024년 북중 '친선의 해' 관련 중요 사건들(2023~2024년)

	2023년	2024년
1월	시진핑의 답전(중) ¹⁾ ; 연하장(북)	'새해맞이 축전' 중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 중 "존경하는" 호칭이 다시 사라짐 연하장(북) 보도 중 러시아 대통령을 중국 최고지도자 앞으로 호명
2월	<u>북한, ICBM 발사(2.18.)</u>	
3월	북한, ICBM 발사(3.16.) 시진핑의 3연임 축전(북)	
4월	<u>북한, ICBM 발사(4.13.)</u> 시진핑의 답전(중); 시진핑의 구두친서 ²⁾	미중간 양국 갈등 관리 노력 ³⁾ ;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김정은, 중국중앙민족음악단 특별음악회 관람
5월	<u>군사정찰위성 추정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5.31.)</u>	한중 외교장관 회담;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6월	시진핑 생일 축전(북)	<u>푸틴 방북 및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6.19.)</u>
7월	<u>북한, ICBM 발사(7.12.)</u> 김정은, 지원군열사릉 방문; 리홍중(李鴻忠) 전인대 부위원장 방북(친서), <u>쇼이구 국방부장을 '동지로' 호칭(친서), 전승절 70주년 기념 푸틴 축하연설을 소개하면서 푸틴을 '동지로 호칭</u>	김정은, 북중 우의탑 방문(7.26.)
8월	<u>군사정찰위성 추정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8.24.)</u>	북한의 수해와 관련한 러시아, 쿠바 등 위문전문은 보도, 중국의 위문전문은 없음 ⁴⁾ 김정은, 해방탑 방문(8.15.)
9월	리우궈중(劉國中) 부총리 방북; 북한 정권 수립일 축전(중)의 "존경하는" 호칭이 사라짐, 답전(북) ⁵⁾ ;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및 제2차 북러 정상회담 보도에서 푸틴, 러시아 고위 관료를 '동지로 호칭	북한 정권 수립일 축전(중), 답전(북) ⁶⁾ 김정은, 러시아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 면담 ⁷⁾

10월	중국 건국일 축전(북)의 “존경하는” 호칭이 사라짐. ⁸⁾ 답전(중)의 “존경하는” 호칭이 다시 나타남 ⁹⁾	중국 건국일 축전(북), 답전(중) ¹⁰⁾ ; 수교 축전 ¹¹⁾
		김정은, 푸틴 대통령 생일 축전에서 “가장 친근한” 및 “가장 친근한 나의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 ¹²⁾
11월	군사정찰위성 추정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11.22.)	김정은, 러시아 벨로루스트 국방장관 면담 ¹⁴⁾
12월	화성포-18형 발사(일자 미상) ¹³⁾	김정은, 푸틴 대통령에게 새해 축하편지 발송 ¹⁵⁾

주: * 북러관계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건에는 음영을 넣었다.

- 1) 중국 장쩌민(江澤民) 전 최고지도자 조전(2022년 11월 30일) 이후 약 50여일 만(2023년 1월 17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낸 것이다. “[전문]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2023년 1월 22일, 1면.
- 2) 국가주석 재선 및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구두친서로 왕야권(王亞軍) 신임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에 전달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가 구두친서를 보내어왔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8일.
- 3) 미중 정상간 통화(2024년 4월 2일), 인태사령부-중국군 간 해상안보협의체 작업반 회의(2024년 4월 3일), 미중 국방장관 회담(2024년 4월 16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중구, “2024년 북중관계 정세보고,” 『2024 중국정세보고』(서울: 국립외교원, 2025), 295~297쪽.
- 4)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음. 반면 러시아 대통령의 위문전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 “가장 친근한 벗들”,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 “가장 가까운 벗”으로 칭하면서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위문을 표시하였다,” 『로동신문』, 2024년 8월 4일, 2면.
- 5) 답전 발송일자는 2023년 9월 21일, 『로동신문』 게재일자는 2023년 9월 24일. “[전문]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3년 9월 24일, 1면.
- 6) 답전 발송일자 2024년 9월 15일, 『로동신문』 게재일자는 2024년 9월 2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9월 22일, 1면.
- 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셰르게이 쇼이구동지를 접견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9월 14일, 1면.
- 8)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에 보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 및 답전에서 “존경하는”이 사라졌다.
- 9) 답전 발송일자는 2023년 10월 28일, 『로동신문』 게재일자는 2023년 11월 2일. “[전문]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2023년 11월 2일, 1면.
- 10) 답전 발송일자는 2024년 10월 16일, 『로동신문』 게재일자는 2024년 10월 20일, 2면. 해당일자 『로동신문』 1면에 게재 가능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게재일자는 2024년 10월 20일, 2면.

- 11) 기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6일, 4면.
- 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8일, 4면.
- 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11월 30일, 1면.
-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경보복의지와 절대적힘의 뚜렷한 과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 단행,” 『로동신문』, 2023년 12월 19일, 1면.
- 1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전동지에게 축하편지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31일, 2면.

년 이후 러시아 ‘전승절’ 축전을 정주년마다 보내는 관례를 깨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러시아 정상에게 ‘전승절’ 축전을 보내고 있다.²⁴⁾ 이어 2022년 7월 북한은 친러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Luhansk People's Republic)을 정식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친선 강도 높이기’를 시도했다.²⁵⁾ 또한 <표 4>에 드러나듯이, 2023~2024년간 북러관계 및 북중관계의 변화에서 ‘동지’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지’ 호칭은 최근의 북러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들을 동지로 호칭하는 것은 2023년 7월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차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관

24) 이상우,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4호(2023), 75쪽. 2025년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축전 대신 집권 이후 러시아 대사관을 처음 방문했고, 축하 연설도 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의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을 축하방문하시었다,” 『로동신문』, 2025년 5월 10일, 1면.

25) 이상우, “김정은의 ‘축전외교’ 연구,” 121쪽.

런 『로동신문』 보도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고,²⁶⁾ 이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및 제2차 북러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는 푸틴 대통령은 물론,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제2차 북러 정상회담 및 김정은의 방러 일정에서 만났던 러시아 측 고위 관료들을 호명하면서 전부 이름 뒤에 ‘동지’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²⁷⁾ 이어 2024년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정상들에게 연하장을 보낸 소식을 전하면서 러시아 대통령을 중국 최고지도자 앞에 1순위로 호명했다.²⁸⁾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정에서 북러 양국은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친근한 동지”가 되었다.²⁹⁾ 이러한 연장선에서 2025년 들어

26) 쇼이구 국방장관을 ‘동지’로 여러 번 호칭했고(『로동신문』 기사상으로는 “국방상 쉼레게이 쇼이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평양 도착,” 『로동신문』, 2023년 7월 26일, 2면에서 최초 ‘동지’로 호칭했고, 이어 27~28일자 쇼이구 장관 방북 관련 보도에서도 ‘동지’로 호칭), 푸틴 대통령의 축하연설을 소개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동지’로 호칭했다. 즉, 호칭에 있어서, 푸틴 등 외국 정상에게 붙이는 일반적인 호칭인 “각하”가 “동지”로 격상된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년 7월 27일, 1면; “1950년-1953년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보고대회 참가자들에게 전송절에 즈음하여 보내온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쎌동지의 축하연설,” 『로동신문』, 2023년 7월 28일, 10면; 이상우,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90쪽.

27) 이상우,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90쪽.

2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새해축하인사와 연하장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18일, 1면.

29)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생일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동지”라고 두 차례 호명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8일, 4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1순위로 놓고 있고, 북러 간의 군사 밀착은 현재 진행 중이다.³⁰⁾

북러의 군사밀착은 중국이 추구하는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에는 배치된다. 따라서 2023년 7월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시 리우전쟁 중임에도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을 보낸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리홍중(李鴻忠) 전인대 부위원장이 이끄는 당정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 이로써 북중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보낸 친서를 접수하면서,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는 집무실에서, 중국 최고지도자의 친서는 북도에서 받았다.³¹⁾ 이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임에도 중국은 리우궈중(劉國中) 부총리가 이끄는 당정대표단을 보냈고, 중국 최고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그간 북한 최고지도자 이름 앞에 사용하던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했는데, 이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로 된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과 대조를 이루었다.³²⁾ 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중국에 “존경하는”을 뺀 답전을 보냈고, 발송일자가 9월 21일인 답전을 사흘이 지나서야 『로동신문』 9월

30) 중국과 러시아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신년사를 먼저 소개했다. 『로동신문』 기사 “로씨야대통령 신년사 발표”와 “습근평주석 신년사 발표,” 『로동신문』, 2025년 1월 3일, 6면 참조.

31) 이는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이 내보낸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돏경축 대공연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을 방문한 친선의 사절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년 7월 27일, 1, 3면.

32) “[축전]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축전을 보내여왔다”와 “[축전]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로동신문』, 2023년 9월 9일, 10면.

24일자로 내보냈다.³³⁾ “존경하는”을 뺀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은 중국 건국일 축전(10월 1일)에도 이어졌고,³⁴⁾ 이에 중국 최고지도자의 답전에는 다시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등장했다.³⁵⁾ 흥미로운 점은, 중국 최고지도자의 답전의 발송일자가 10월 28일임에도, 북한이 닷새가 지난 『로동신문』 11월 2일자로 내보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러시아의 국방부대표단이 아닌 당정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 북러 군사밀착,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배치되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했고, 북한은 그간의 ‘축전외교’ 경험을 살려 중국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³⁶⁾ 북중 간 축전을 통한 외교적 공방은 2024년에도 계속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2024년 1월 1일 북한과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 및 ‘친선의 해(友好年)’의 시작을 선포한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에서조차 서로에게 ‘존경하는’이라는 호칭을 뺐다는 점이다. 중국 또한 북러 군사밀착과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배치되는 북한의 행보를 견인하고자 했는데, 2024년 4월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에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끄는 당정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2023년 7월과 9월의 리홍중

33) “[축전]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3년 9월 24일, 1면.

34) “[축전]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3년 10월 1일, 1면.

35) “[전문]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2023년 11월 2일, 1면.

36) 2013~2017년 북한의 대중국 ‘축전외교’와 관련한 논의는 이상우의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상우, “김정은의 ‘축전외교’ 연구,” 108~117쪽.

부위원장이나 류귀중 부총리보다 서열이 훨씬 높은 서열 3위의 정상급 매신저를 통해 북한에게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중시한다는 점, 그리고 양국 ‘친선’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러 군사밀착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불리한 북중러 대한미일의 ‘신냉전’ 구도를 예돌려 차단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³⁷⁾

요컨대, 중국은 2023년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에 리홍중 전인대 부위원장, 리우귀중 부총리, 그리고 2024년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에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고급 매신저들을 북한에 파견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자국의 목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자 했다. 더불어 미국, 한국, 일본 등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다른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을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 2024년 4월 중국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이후 북중 ‘친선의 해’ 폐막식이나 북중 간 정상급 교류는 중단되었다. 2009년 북중 ‘친선의 해’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배신’ 행위에 대응해 2009년 당시 북한이 대미 접근을 선택했다면, 2024년 북한은 대러 군사밀착으로 선회했다. 북한의 대러 군사밀착이 ‘북방삼각동맹’의 복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 및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체결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군사안보적 안전판을 구축한 것이

37) 양갑용·최용환, “중국 자오러지 전국인대 위원장의 방북 함의: 중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INSS 이슈브리프』, 제541호(2024), 1~7쪽.

다.³⁸⁾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2009년 북미관계 개선이 2024년 재현되지 않은 이상, 또 한 번의 북한과의 정상급 교류가 성사되어 국제사회에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을 강조했던 것과 상반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축전 내용의 비교로 본 북한과 중국의 ‘친선의 해’ 활용 의도

서론의 두 번째 문제제기에서 지적했듯이, 북중 양국이 ‘친선의 해(友好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좀 더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중, 중-베트남, 북-베트남 ‘친선의 해(友好年)’ 기념 축전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부분에서는 북중과 중-베트남의 기념 축전 내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의 의도를, 그리고 북-베트남 기념 축전 내용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진일보해 파악하고자 한다.

1) 북중 및 중-베트남 ‘친선의 해’ 비교로 본 중국의 의도

북한 및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중국의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축전 중의 ‘친선(우호)’와 ‘친선의 해(우호의 해)’ 관련 언급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표 3>의 분석에서 지적했던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 관련 언급이다.³⁹⁾ 북한과 달리 중국

38) 전병곤, “정상회담으로 본 북중 관계,” 『성균차이나브리프』, 제12권 4호(2024), 130쪽.

39) 2010년 중-베트남 수교 60주년 기념 및 ‘우호의 해’ 관련 축전에서는 ‘사회주의’ 언급 자체가 없었고, 베트남에 대한 16자 방침인 “장기안정(長期穩定)·미래지

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를 축전에 담았는데,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 대신 모두 북한과의 “친선협조관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되기를 강조하고 있다.⁴⁰⁾ 이와 달리, 중국 최고지도자가 베트남 최고지도자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사회주의’ 관련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에게 있어서 “산과 물이 서로 잇닿아 있는 우호적인 이웃 국가(山水相連的友好隣邦)”인 북한과 달리,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우호적 이웃국가(社會主義友好隣邦)”이다. 다음으로, 중국과 베트남이 사회주의의 길(社會主義道路)을 잘 걸어 나가는 것은 “양당 양국의 앞날과 운명, 세계 사회주의 사업의 미래(世界社會主義事業的未來)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본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이 수교 75주년 기념 및 ‘인문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 협력을 강화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여정(社會主義現代化建設新征程)에서 계속해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며, … 전세계 사회주의 사업(世界社會主義事業)의 부흥과 인류 발전 진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의미를 지닌 운명공동체(具有戰略意義的命運共同體)”

향(面向未來)·선린우호(睦隣友好)·전면협력(全面合作)” 및 “좋은 이웃(好鄰居)·좋은 친구(好朋友)·좋은 동지(好同志)·좋은 파트너(好夥伴)”임을 강조했다. “中越領導人互致賀電慶祝兩國建交60周年,” 『光明日報』, 2010년 1월 19일, 1면. 2000년대 초반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16자 방침과 유사하게 북한에 대해서도 16자 방침을 공개 천명했는데, “전통계승(繼承傳統)·미래지향(面向未來)·선린우호(睦隣友好)·협력강화(加強合作)”이다.

- 40) 중국 최고지도자가 보낸 2009년 북중 ‘친선의 해’ 기념 축전과 2010년 중-베트남 ‘우호년’ 기념 축전은 공통적으로 ‘친선’관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기여 혹은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며, 양국은 이러한 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에 합의했다는 것이다.⁴¹⁾ 중국 최고지도자의 축전은 중국과 베트남이 “전략적 의미를 지닌 운명공동체”임을 세 차례 언급했는데, “동지이자 형제(同志加兄弟)”는 중-베트남 관계의 또 다른 표현이다. 2025년 중-베트남 수교 75주년 기념 및 ‘인문교류의 해’ 기념 축전에서 중국이 베트남을 칭할 때 사용한 표현은 2010년 수교 60주년 기념 및 ‘우호년’ 기념 축전에서 사용한 표현과 확연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2009년 및 2024년 북중 수교 기념 및 ‘친선의 해’ 기념 축전에서 사용한 북한을 칭하면서 사용한 표현과도 확연히 구분된다. 즉, 북한과 베트남은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변국이자 동일한 사회주의국가인 점은 분명하나, 중국은 베트남과 ‘사회주의 한길’을 강조한 반면,⁴²⁾ 북한과 ‘사회주의 공동투

41) “習近平同越共中央總書記蘇林、國家主席梁強就中越建交75周年互致賀電,” 『人民日報』, 2025년 1월 19일, 1면.

42) 중국 최고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이나 답전에서는 ‘사회주의 한길’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기타 중요 회담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는 2018~2019년 북중 정상회담 시 양국의 원칙 및 합의(原則共識)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북중 최고지도자가 2018년 3월과 5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는 확고부동하며 올바른 선택, 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양자 관계는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으며,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키며, 양국관계 발전은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등 총 네 가지 원칙 및 합의를 이룩했음을 강조했다. “習近平同朝鮮勞動黨委員長金正恩在大連舉行會晤,” https://www.gov.cn/xinwen/2018-05/08/content_5289224.htm(검색일: 2018년 6월 20일). 다른 하나는 2019년 6월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 및 제5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중북관계 발전의 네 가지 경험을 언급했고, 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동의했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를 견지하는 것이 북중 관계의 본질적 속성(堅持社會主義國家是中朝關係的本質屬性)”, “공동의 이상적 신념과 분투 목표는 북중 관계의 전진 동력(共同的理想信念和奮鬥目標是中朝關係的前進動力)”, “최고지도자의 우

쟁'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 베트남의 국제정세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국제정세의 핵심의제와 인식을 '혁명과 전쟁',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로 보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평화와 발전', 그리고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사회주의 한길'과 달리, 북한과의 '사회주의 한길'을 강조할 경우 자칫 그것이 '사회주의 공동투쟁'으로 비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중-베트남 관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 1961년 7월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즉, 중-베트남 관계는 군사동맹 성격을 띤 북중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불어 냉전기 1950년 2월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1961년 7월 북소 및 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른바 “북방삼각동맹”이 형성되었고, 중소분쟁이 일어났음에도 냉전기 동안 큰 틀에서는 “북방삼각동맹”과 “남방삼각동맹”의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냉전기의 “북방삼각동맹”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요인도 북중 ‘친선의 해’ 및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에 영향을 미친다. 1975년 통일이 된 베트남과 달리 남북 분단이 된 상황, 더욱이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남한의 제1교역국 이었고, 2022년 남한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위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점에 미루어 볼 때, 중국은 북한과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을

의 전승과 전략적 선도가 북중 관계의 가장 큰 강점(最高領導人的友誼傳承和戰略引領是中朝關係的最大優勢)”, “지연의 상근과 문연의 상통은 북중관계의 굳건한 연결고리(地緣相親和文緣相通是中朝關係的牢固紐帶)”이다. “共同開創中朝兩黨兩國關係的美好未來 — 記習近平總書記對朝鮮進行國事訪問,” 『人民日報』, 2019년 6월 23일, 1면.

강조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가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폐막식의 개최 여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북중 ‘친선의 해’와 중-베트남 ‘우호년’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북중 ‘친선의 해’에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있다면, 중-베트남 ‘우호년’에는 개·폐막식 자체가 없다. 그 대신 개막식이나 폐막식에서 어떤 급의 인사들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으며, 정상급(최고위급) 메신저로서 그들의 상대국 방문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중 ‘친선의 해’를 처음으로 개최한 2009년 전 해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중, 그리고 중-베트남 정상급(최고위급) 교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북중 정상급(최고위급) 교류와 달리, 중-베트남 정상급(최고위급) 교류는 코로나 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베트남 ‘친선의 해’는 굳이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북중 ‘친선의 해’는 개막식이나 폐막식 개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즉, 매년 정상급(최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막식 혹은 폐막식의 형식을 빌린 교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에 비해 정상급(최고위급) 메신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표 4> 관련 설명에서 지적했듯이, 2023년 북중 간 정상급(최고위급) 교류는 북러 간 정상급(최고위급) 교류와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국방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대표단을 보냈고, 이와 달리 중국은 정주년임에도 정상급(최고위급)이 아닌 고위 관료가 이끄는 당정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함으로써 북한과는 다른 국제정세 인식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3년과 달리

〈표 5〉 북중, 중-베트남 정상급(최고위급) 교류

	북중		중-베트남	
	북한 정상(급)	중국 정상(급)	중국 정상(급)	베트남 정상(급)
2008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2009	총리	총리	총리	총리(2)
2010			총리	총리
2011			국가 부주석(정치국 상무위원)	당서기장
2012	국방위 부위원장 (장성택)			총리
2013	제1비서 특사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국가부주석	총리	국가주석; 총리
2014			전국정협 주석	국가주석
2015		정치국 상무위원· 서기처 서기	총서기	당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2016			전인대 상무위원장	총리
2017			총서기	당서기장; 국가주석
2018	총비서(3)	전인대 상무위원장		총리
2019	총비서	총서기		총리; 국회의장
2020	-----	-----	-----	-----
2021	-----	-----	-----	-----
2022				당서기장
2023			총서기	총리; 국가주석
2024		전인대 상무위원장	총리	국회의장; 총리; 당서기장; 총리
2025			총서기	

주: 1) 북중 간 정상급(최고위급) 교류에는 최고지도자, 정치국 상무위원 등 인사의 상대국 방문, 그리고 정치국 위원, 장·차관급 등 고위급 인사의 상대국 방문의 경우는 상대국 최고지도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권력의 4대 핵심인 당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리에 한정했다. 또한 2009년과 2024년은 북중 ‘친선의 해’이고, 2010년과 2025년은 중-베트남 ‘친선의 해’라는 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자 표에 음영을 넣었다.

2024 중국은 북중 ‘친선의 해’에는 대표단 격을 높여 서열 3위인 정상급(최고위급) 인사가 이끄는 당정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 그럼에도 북한에 전달한 메시지는 2023년과 다르지 않았다.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연설에서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중 친선을 “반제자주와 평화,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장구한 려정에서 피로써 땀어지고 계승발전되어온 불패의 친선”으로, 그리고 양국 관계가 “결코 지리적으로 가까와서만이 아니라 공동의 위업을 위한 간고한 투쟁과정에 굳건히 땀어지고 공고화된것으로 하여 더욱더 값비싸고 고귀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주의기치높이 강국건설의 새 지평을 향한 조중 두 나라의 전진보폭이 커질수록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질것이며 이는 두 당, 두 나라가 세기를 이어 다져온 전투적우의와 단결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최룡해 위원장의 연설에서는 상술한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이라는 국제정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 자오러지 위원장은 양국이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사회주의의 친선적린방”이라고 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쌍방은 운명을 함께 하면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우의를 맺었으며 정성을 다해 굳게 뭉쳐 공동의 리익과 국제사회의 정의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⁴³⁾ 즉, ‘전투적 우의’는 현재가 아닌 과거와 연관된다는 의미다. 이어 자오러지 위원장은 양국 최고지도자가 최근 몇 년간 정상회담, 축전과 친서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역사 시기로 이끌었는데, 양국의 교류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각자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강력히 촉진하고, 양국 국

43) “《조중친선의 해》 개막식 진행,” 『로동신문』, 2024년 4월 13일, 1면.

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주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⁴⁴⁾ 흥미로운 점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강조는 『로동신문』 관련 보도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서, 북중 간 국제정세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북-베트남 ‘친선의 해’ 선포와 북한의 의도

북한과 베트남의 최고지도자는 2025년 1월 축전을 교환하면서 수교 75주년 기념 및 ‘친선의 해’의 시작을 선포했다. 축전 중 ‘친선’과 ‘친선의 해’ 관련 언급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과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 즉 ‘투쟁’이나 ‘공동투쟁’을 두 차례 강조하고 있다. 황수환은 북한의 북-베트남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 즉 북한의 ‘친선의 해’ 개최 의도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는데, 9차 당대회를 위한 외교적·경제적 성과로의 활용, 대중국 또는 대러시아 균형외교의 수단으로의 활용,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의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⁵⁾ 이와 달리, 연구자가 주목하는 것은 외교적 성과로의 활용보다는,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한이 ‘축전외교’를 포함한 외교의 ‘새 판짜기’를 위한 다시 한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신(新)우군 ‘확보’ 및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로 나타난

44)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趙樂際在“中朝友好年”開幕式上的致辭,” https://www.fmprc.gov.cn/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404/xgxw_676410/202404/t20240412_11281105.shtml(검색일: 2024년 6월 30일).

45) 황수환, “북한과 베트남의 ‘친선의 해’ 설정 의미,” 1~4쪽.

〈표 6〉 2025년 '새해맞이 축전(1월 1일)'의 '친선'과 '친선의 해' 관련 언급

북한 최고지도자의 축전 ¹⁾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축전 ²⁾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5돛에 즈음하여...	외교관계수립후 지난 75년간의 로정에서...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
조선과 월남 두 나라 당과 정부가 올해를 《친선의 해》로 정한것은 <u>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굳건해진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승화발전시켜나가려는</u>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에 부합됩니다.	월남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세계와 지역정세의 변화 속에서 독립과 자주, 평화와 친선, 협조와 발전의 대외로선, 대외관계를 다각화, 다양화하고 국제적일체화에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국제공동체의 믿음직한 벗, 동반자,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일원이 되기 위한 대외로선을 견지...
나는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5돛이 되는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하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u>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u> 조선월남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 두 나라에서의 <u>사회주의건설위업과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되리라는</u> 확신을 표명합니다.	월남당과 국가, 인민은 조선당과 정부, 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언제나 중시하고있으며...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매개 나라의 리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부합되게 끊임없이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는 두 당, 두 나라 지도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밑에 쌍방이 협조하여 의의있는 교류와 협조활동들로 《2025년 월남조선친선의 해》에 즈음한 행사들을 공동으로 훌륭하게 진행함으로써 월남과 조선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로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월남과 조선 두 나라는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지난 75년간...전통적인 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의 념원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유익하게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왔습니다. 월남당과 국가, 인민은 조선과의 협조관계를 언제나 중시하고있으며 이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념원과 매개 나라의 국제적 공약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부합되게 많은 분야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촉진시켜나갈것을 희망...

나는 동지와 함께 <<2025년 월남조선 친선의 해>>의 가동을 선포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25년 1월 31일, 3면.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로동신문』, 2025년 1월 31일, 3면.

다는 점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축전외교’를 포함한 북한외교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신우군 대베트남 ‘축전외교’ 및 ‘친선’관계 강화이다.⁴⁶⁾ 또한 2021년 후반 북한이 국제정세를 이른바 ‘신냉전’으로 규정한 것에 미루어 볼 때, 2025년 1월 북-베트남 수교 75주년 기념 및 ‘친선의 해’ 선포는 결국 북한이 북-베트남 ‘친선의 해’를 활용해 국제혁명역량 강화, 즉 진영 간 대결을 위한 자국 진영의 혁명역량강화를 추구하기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선의 해’를 활용해 ‘신냉전’ 시대 중국 및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즉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와 다르게, 베트남은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 언급 대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 즉,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은 베트남이 북한 동지들과 함께 ‘친선’관계가 ‘매개 나라의 리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부합되게 끊임없이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 국가주석

46) 이상우, “김정은의 ‘축전외교’ 연구,” 118~119쪽.

역시 양국의 ‘친선’관계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유익하게 공고 발전되어 왔고, 향후에도 부합되게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이 보낸 축전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즉, “베트남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세계와 지역정세의 변화 속에서 독립과 자주, 평화와 친선, 협조와 발전의 대외로선, 대외관계를 다각화, 다양화하고 국제적일체화에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국제공동체의 믿음직한 벗, 동반자,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일원이 되기 위한 대외로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에 대한 일종의 답변인데, 베트남은 북한의 이른바 ‘신냉전’이나 ‘진영 간 대결구도’ 등 국제정세 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예들려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가 판단컨대, 베트남이 베트남-북한 ‘친선의 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중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중국 최고지도자의 2024년 ‘새해맞이 축전(1월 1일)’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두 차례 강조했다. 점에서 베트남의 ‘친선의 해’ 활용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베트남공산당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중국의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목표와 유사하게 ‘2개의 100년 목표’,⁴⁷⁾ 즉 베트남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중고소득 개발도상국’,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베트남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중 간 균형정책을 유지하면

47) 중국의 ‘두 개의 백년’ 목표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全面建成小康社會)’를 완성하여 전 인민이 중산층 시대로 진입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 민주, 문명, 화해의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서 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취했고, 더 나아가 미중 갈등을 자국 발전의 기회로 삼는 유연한 외교를 펼친 베트남에게 ‘신냉전’이나 ‘진영 간 대결구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⁴⁸⁾ 다음으로, 중국과 유사하게 남한 요인도 북-베트남 ‘친선의 해’ 및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베트남은 남한의 3위 교역국이고, 남한도 베트남의 제3 교역국이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베트남은 북한과 ‘사회주의 한길/공동투쟁’을 강조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북중관계 ‘이상설’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친선의 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는 본 연구가 ‘친선의 해’를 북중 양국이 추구하는 외교목표가 아니라, 반대로 북중 양국이 자국의 국가목표이자 국가이익을 이루기 위해 ‘친선의 해’를 활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 즉 북중 양국의 의도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북중 양국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선 북중관계의 맥락에서 2009년과 2024년 두 차례 북중 ‘친선의 해’를 비교 고찰했고, 이어 ‘친선의 해’ 기념 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중과 중-베트남 ‘친선의 해’의 비교, 북한과 베트남의 ‘친선의 해’ 활용 의도의 비교를 시도

48) 유현정, “미중 사이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현안과 시사점,” 『INSS 이슈브리프』, 제596호(2024), 1~6쪽.

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2009년과 2024년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친선의 해’의 활용 의도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북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북한이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구도를 형성 및 활용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중국의 목표에 배치되며, 중국은 ‘친선의 해’를 통해 상술한 북한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북한의 ‘친선의 해’ 활용 의도의 변화에 대응해, 2024년 중국의 ‘친선의 해’ 활용 강도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북중 ‘친선의 해’가 폐막식조차 없이 막을 내린 사실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2025년 북-베트남 ‘친선의 해’의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다. 물론 혹자는 북한이 베트남과의 ‘친선의 해’를 설정한 의도로 조선로동당 9차 당대회를 위한 외교적·경제적 성과로의 활용을 지적하고 있지만, ‘친선의 해’에 대한 북한과 베트남 양국의 해석 및 활용의 차이로 인해, 북-베트남 ‘친선의 해’ 역시 북한이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이 외교적 성과로 강조했던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북-베트남 정상회담 정도의 외교성과를 거두는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북중 ‘친선의 해’ 설정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25년 6월 출범한 남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북중 ‘친선의 해’의 결과나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25년 북-베트남 ‘친선의 해’의 전망,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이 ‘신냉전’이나 ‘진영 간 대결구도’의 형성에 대한 반대를 공식적·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남한 신 정부는 전임 정부의 ‘가치 외교’ 대신 베트남 및 중국을 상대로 유연한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베트남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의 과정은 결국 베트남 및 중국과의 연대 강화 및 남한에도 경제적 위기 상황의 극복에의 도움, 유리한 국제환경의 마련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체로 분석의 중점을 2009년과 2024년 두 차례의 북중 ‘친선의 해’에 두고 있고, ‘친선의 해’ 기념 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중과 중-베트남 ‘친선의 해’의 비교, 북한과 베트남의 ‘친선의 해’ 활용 의도의 비교 분석을 일부 시도했다. 그럼에도 중-베트남 ‘우호년’과 북-베트남 ‘친선의 해’, 특히 베트남의 의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더불어 제2장의 각주 15)(14쪽)에서 지적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중러 간 각종 ‘태마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향후 북중 양국이 또다시 ‘친선의 해’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관련 연구들이 북중 ‘친선의 해’와 북-베트남 ‘친선의 해’를 고찰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이는 결국 북중관계, 북-베트남 관계나 북한외교 연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 투고: 2025.06.29. / 수정: 2025.07.30. / 채택: 2025.07.31.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2) 신문

『로동신문』, 2009년 1월 1일; 2021년 9월 30일; 2023년 1월 22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9월 9일, 9월 24일, 10월 1일, 11월 2일, 12월 19일; 2024년 1월 1일, 1월 18일, 4월 13일, 8월 4일, 9월 14일, 9월 22일, 10월 6일, 10월 8일, 10월 20일, 11월 30일, 12월 31일; 2025년 1월 3일, 1월 18일, 1월 31일, 5월 10일.

3) 기타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박명호동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동지를 만났다,” <http://www.mfa.gov.kp/view/article/18989>(검색일: 2024년 5월 20일).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8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용호, 『세계화시대 국제관계: 동아시아적 이해』(서울: 오름, 2010).

손대권, “2023년 북중관계 정세보고,” 『2023 중국정세보고』(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

이상숙,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中)정책(2012-2021)』(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이중구, “2024년 북중관계 정세보고,” 『2024 중국정세보고』(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

보연구소, 2025).

2) 논문

김근식,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국제정치 논총』, 제42집 4호(2002), 151~166쪽.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1호(2013), 193~224쪽.

김홍규, “시진핑 시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아시아 브리프』, 통권 26호(2021).

박병광,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2008), 31~52쪽.

양갑용·최용환, “중국 자오리치 전국인대 위원장의 방북 함의: 중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INSS 이슈브리프』, 제541호(2024).

유현정, “미중 사이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현안과 시사점,” 『INSS 이슈브리프』, 제596호(2024).

이상우, “김정은의 ‘축전외교’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5권 3호(2022), 92~135쪽.

_____,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4호(2023), 69~98쪽.

전병근, “정상회담으로 본 북중 관계,” 『성균차이나브리프』, 제12권 4호(2024), 124~131쪽.

한승태, “2012년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 변경과 혼합에 관한 단상,”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2021), 105~137쪽.

황수환, “북한과 베트남의 ‘친선의 해’ 설정 의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5-06(2025).

3. 국외 자료

1) 단행본

Goldstein, Joshua S. and John R. Freeman, *Three-Way Street: Strategic Reciprocity in World Politic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2) 신문

『光明日報』, 2009년 4월 18일; 2010년 1월 19일.

『人民日報』, 2025년 1월 19일; 2019년 6월 23일.

3) 기타 자료

“習近平同朝鮮勞動黨委員長金正恩在大連舉行會晤,” https://www.gov.cn/xinwen/2018-05/08/content_5289224.htm(검색일: 2018년 6월 20일).

“溫家寶會見越南總理,” https://www.fmprc.gov.cn/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7292/xgxw_677298/200904/t20090417_9308523.shtml
(검색일: 2024년 5월 20일).

“王毅會見朝鮮外務省副相樸明浩,” https://www.fmprc.gov.cn/wjdt_674879/wjbxw_674885/202312/t20231218_11205966.shtml(검색일: 2024년 5월 20일).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趙樂際在”中朝友好年”開幕式上的致辭,” https://www.fmprc.gov.cn/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404/xgxw_676410/202404/t20240412_11281105.shtml(검색일: 2024년 6월 30일).

The Significance of the Designation of the ‘Year of Friend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Li, XiangYu (Ocean University of China)

This study views the ‘Year of Friend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t as a diplomatic goal pursued by each actor, but as a means to achieve their respective national goals and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questions the misconceptions surrounding the ‘Year of Friendship’, which have recently been cited as a key basis for examining the abnormalitie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designation of the ‘Year of Friendship’ from a national perspective. Comparing the ‘Year of Friendship’ in 2009 and 2024, North Korea’s shift in its intentional use of the ‘Year of Friendship’ is more pronounced than that of China. This shift is closely related to North Korea’s recent attempts to create and exploit a ‘new Cold War’ and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two blocs. These North Korean intentions run counter to China’s goal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surrounding region’, and China appears to have sought to

preemptively block North Korea's aforementioned attempts through the 'Year of Friendship'. In response to North Korea's shifting intentions in its use of the 'Year of Friendship' in 2024, China's utilization also shows differences. The fact that the 'Year of Friendship' in 2024 ended without even a closing ceremony reflects this. Therefore, for South Korea, it will be important for the new government in Seoul to pursue flexible diplomacy with China and Vietnam and strengthen solidarity to maintai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Keywords: North Korea - China relations, relationship abnormalities, 'Year of Friendship', national interests